

이유영 “10m 다이빙대서 물구나무 섰을때 뿌듯했어요”

“시나리오를 읽었던 느낌대로 기대만큼 영화가 만족스럽게 나와 기분이 좋아요”

배우 이유영은 21일 화상으로 만난 인터뷰에서 “다이빙이라는 아슬아슬한 스포츠와 스틸러가 잘 어울린다”고 했다.

23일 개봉하는 영화 ‘디바’에서 다이빙 선수로 변신한 이유영은 속내를 알 수 없는 묘한 분위기로 미스터리 스틸러를 소화했다.

“다이빙이라는 흔하지 않은 소재에 끌렸어요. 처음 시나리오를 보고 다이빙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데, 쉬운 것보다 어렵거나 고생스러운 것에 마음이 더 갔어요”

그는 “여자 배우들의 연기적인 욕심을 해소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많이 있는데, 여성 캐릭터가 잘 그려져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조슬에 감독님이 각색 경험도 많고 글 잘쓰는 감독님이기에 믿고 선택했다”고 말했다.

‘디바’는 다이빙계의 퀸 ‘이영’(신민아)이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한 후, 잠재했던 욕망과 광기가 깨어나며 일어나는 미스터리 스틸러다.

‘이영’은 전 세계적인 다이빙계 스타이지만, 어느 날 의문의 사고 이후 실종된 친구 ‘수진’(이유영)의 이면을 알게 되면서 성공을 향한 열망과 집착으로 광기에 잠식되어간다.

‘수진’은 ‘이영’과 둘도 없는 단짝이지만, 늘 뒤처지면서 복잡한 속내를 갖고 있다. 조슬에 감독은 시나리오보다 이유영이 연기한 ‘수진’이 더 매력적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수진’의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겉으로 잘 웃고 있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캐릭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사람들이 마지막에 ‘수진’에게 감정을 이입해주길 바랍니다.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알 수 없는 묘한 이미지로 감독님도 마음에 들어하신 것 같아요.”

실제 ‘수진’과 이유영도 닮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평소에 감정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못

영화 ‘디바’ ‘수진’ 役…다이빙 선수로 변신

“속내 알수 없는 성격 닮아 감정 표현 잘돼”

“처음엔 1m도 무서웠는데 실력 늘어 성취감”

“신민아, 길쭉한 다리·작은 얼굴 부러워”

하는 성격”이라며 “속내를 알 수 없는 ‘수진’과 닮아 잘 표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여배우로서 민낯에 수영복 차림은 걱정이 앞섰다. 이유영은 “해변에서 수영복을 입는 것도 부끄러운데, 영화에서 수영복을 입고 나오면 평가를 받지 않을까 부담감이 처음에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다이빙 훈련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수영복으로 몸을 최대한 감추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선수들이 입는 수영복을 입으면 그에 맞게 몸도 변하고 다이빙 실력도 는다고 해서 과감하게 도전하게 됐죠.”

“자연스러운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믿어요. 물에 젖은 맨얼굴이 부담되지 않았죠. 아름다워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훈련을 받으면서 순간순간 무서움도 느꼈다. 하지만 점차 실력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재미를 느꼈다고 했다.

“처음에는 1m도 너무 무서웠어요.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뛰었을 때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못할 것 같았는데 해냈다는 성취감이 컸죠.”

다이빙 선수 역할이기에 최대한 소화하고 싶었지만, 단기간에 해내기에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선수처럼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게 힘들었다”고 아쉬워했다.

하지만 극 중 강렬한 인상을 남긴 ‘수진’의 다이빙대 위 물구나무 섰는 직접 해냈다.

“욕심이 났어요. 직접 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연습했죠. 처음에는 누가 잡아줘도 무서웠

데, 나중에 제힘으로 다리를 들어 올려 물구나무 서게 됐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10m 다이빙대 끝에서 물구나무 섰을 때 무서웠지만, 한 번에 해냈고 기억에 많이 남아요.”

신민아와는 다이빙 훈련을 함께 받으며 서로 자극이 됐다.

이유영은 “훈련하면서 친구처럼 친해질 수 있었고, 승부욕은 좋은 시너지가 됐다”며 “혼자 훈련했으면 빨리 성장하지 못했을 것 같다. 늘 언니가 앞장서서 먼저 뛰어줬고, 그럼 저도 용기 내서 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촬영 현장에서도 친구처럼 호흡이 좋았다. “처음에는 ‘이영’과 ‘수진’이 상반된 캐릭터로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감독님이 비슷한 이미지였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언니와 즐겁게 웃고 있는 장면을 촬영했는데, 친구처럼 잘 어울렸어요. 언니가 남자가 어울리는 것처럼 여자도 잘 어울리는 힘이 있는데, 우리가 잘 어울린다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

이유영은 “언니는 저보다 연기나 현장 경험이 엄청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연륜과 여유로움이 있다”면서 “외형적으로는 길쭉길쭉한 다리와 조막만한 얼굴이 부러웠다”며 웃었다.

2014년 데뷔한 이유영은 연기를 시작한 후에 자신의 눈동자를 좋아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스크린에서 얼굴을 가까이 잡아주는데, 남들과 조금 다른 눈동자가 매력인 것 같다”며 수줍어했다.

대표작으로는 데뷔작 영화 ‘봄’을 꼽았다. 그



는 “첫 작품이자 제가 계속 연기할 수 있게 만들어준 작품”이라며 “이 영화를 계기로 많은 감독님들이 찾아주셨고, 신인상 등 많은 상을 받아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이유영이 가장 큰 욕망을 갖는 건 “연기”라고 꼽았다. ‘디바’를 통해서도 뻘한 악역이 아닌, 사연이 있는 ‘수진’을 잘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 싶다고 했다.

“연기를 잘 해낸 날은 너무 행복하고, 잘 못 해낸 날은 며칠 동안 힘들고 우울해요. 삶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연기에 대한 욕망이 큰 것 같아요. 연기력이나 스스로 한계를 느끼면 괴롭지만, ‘괜찮아, 욕심이 커서 그런 거야, 다음에 더 잘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노력해요.”

블랙핑크 ‘HYLT’도 넘겼다…스포티파이 ‘2억 스트리밍’ 6번째

내달 2일 데뷔 4년만 첫 정규앨범 ‘더 앨범’ 전곡음원 발표



그들 ‘블랙핑크(BLACKPINK)’가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2억 스트리밍 이상의 곡을 또 추가했다.

22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HYLT)은 최근 스포티파이에서 2억 스트리밍을 최근 돌파했다.

음원 발매 87일 만의 기록이자 ‘봄바야,’

‘마지막처럼’, ‘뚜두뚜두’, ‘솔로(제니), ‘킬 디스 러브’에 이어 블랙핑크 통산 6번째다

글로벌 음악 시장 내 비중과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스포티파이에서 블랙핑크의 존재감이 날이 커지고 있다.

실제 ‘하우 유 라이크 댓’은 지난 6월 발매 직후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 50차트서 2위를 차지하며 당시 K팝 최고 순위를 썼다.

아울러 현재 3억 스트리밍을 넘어선 ‘킬 디스 러브’와 ‘뚜두뚜두’보다 더욱 빠른 스트리밍 증가 추이를 나타냈다.

블랙핑크는 첫 정규앨범 발매에 앞서 선공개 싱글 ‘하우 유 라이크 댓’과 ‘아이스크림’을 연속 히트시키며 세계적인 걸그룹으로 한걸음 더 올라섰다.

특히 이 두 곡은 블랙핑크의 상반된 매력을 각각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하우 유 라이크 댓’이 힘찬 베이스 음악에서 나오는 블랙핑크 특유의 걸크러시와 강렬한 퍼포먼스를 내세웠다면, ‘아이스크림’은 블랙핑크가 처음 시도한 귀엽고 상큼한 콘셉트의 팝 장르 곡이었다.

‘아이스크림’은 음원 발매 직후 아이튠즈 월드와이드 송 차트 1위에 등극했고, 별다른 활동 없이도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13위에 올라 K팝 걸그룹 역대 최고 순위를 갈아치웠다.

또 이날 기준 중국 최대 음원사이트 QQ뮤직에서는 ‘아이스크림’ 음원 다운로드 수 100만 건을 돌파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블랙핑크는 내달 2일 데뷔 4년 만의 첫 정규 앨범 ‘더 앨범(THE ALBUM)’의 전곡 음원을 발표한다. 음원 발매 시간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 0시, 한국 시간으로는 같은 날 오후 1시다.

BTS ‘다이너마이트’ 안무뮤비, 게임 속에서 공개



그들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 ‘핫100’ 1위에 빛나는 ‘다이너마이트(Dynamite)’의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를 온라인 게임 속에서 공개한다.

22일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오는 26일 오전 9시 세계적인 게임 개발사 겸 게임엔진 개발사인 에픽게임즈와 협업해 ‘다이너마이트’의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를 세계 최대 온라인게임 ‘포트나이트’의 파티로얄 모드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포트나이트’ 파티로얄 모드는 플레이어들이 전투 없이 친구나 다른 플레이어들과 함께 콘서트와 영화를 관람하거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셜 공간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다이너마이트’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 상영회를 게임 속 가상공간에서 여는 셈이다.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 공식 뮤직비디오에 이어 비-사이드(B-side) 버전을 추가 공개하며 세계 팬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번에는 ‘포트나이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이너마이트’ 공식 뮤직비디오는 지난달 21일 유튜브 공개와 동시에 접속자 수 300만 명을 넘기며 두 달 만에 3억 8000뷰를 기록 중이다.

유튜브 프리미어 뮤직비디오 역대 최다 시청 기록을 세웠으며, 영국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서 ‘24시간 동안 최다 시청 유튜브 비디오’, ‘24시간 동안 최다 시청 유튜브 뮤직비디오’, ‘케이팝 그룹 중 24시간 동안 최다 시청 유튜브 뮤직비디오’ 등 3개 부문에 공식 등재되며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켰다.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근 미드나잇(Midnight), 레트로(Retro), 베드룸(Bedroom) 등 총 네 가지 버전의 리믹스 버전 음원을 추가 발매했다.

개그맨 박휘순 11월 결혼…예비신부 “제가 데려갑니다”

예비신부, 직접 글 올려 ‘눈길’…1년 여간 열애끝 백년가약 맺어

개그맨 박휘순이 결혼한다. 박휘순 예비신부는 “제가 데려간다”고 직접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박휘순 예비신부는 22일 박휘순 SNS를 통해 “안녕하세요! 휘순오빠 여자친구입니다. 갑작스럽지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휘순오빠의 계정을 잠시 도용해 인사드립니다”며 결혼 소식을 전했다.

예비신부는 “그동안 개그맨 박휘순은 ‘연애는 할 수 있을까?’, ‘결혼은 언제쯤 할까?’, ‘어떤 여자가 데려갈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셨죠?”라며 “이제 그 걱정은 좀 덜어내도 될 것 같아, 제가 데려간다!”고 적었다.

“결보기와 달리 굉장히 따뜻하고 배려 깊고 저를 생각해주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며 “이 남자 앞니 빠지는 날엔 제가 자릴리틀 끼워주려구요”라는 다짐이다.

아울러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이런 소식을 알리는 것이 너무나도 조심스럽지만 전국의 모든 신랑신부님들 저희와 같이 힘냈으며 좋겠다”며 “힘든 시기인 만큼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더욱 단단한 사이가 되고 행복은 배가 되

길 바라겠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1년 여간의 열애 끝에 11월 백년가약을 맺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휘순은 JTBC 예능물 ‘1호가 될 순 없어’에서 열애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박휘순은 2005년 KBS 20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KBS ‘개그콘서트’에서 ‘육봉달’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으며 그 해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남자 신인상을 차지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았다.

영화 ‘선물’, ‘DMZ, 비무장지대’, ‘공필두’, ‘미녀는 괴로워’, ‘청담보살’, 드라마 ‘공부의 신’, ‘드림하이’ 등에 출연, 연기자로 활약하기도 했다.